

사도들의 편지를 읽기 위한 한 가지 모델

서 인 석

1. 들어가면서

신약성서의 텍스트들 중에서 사도들의 서간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신약성서의 27개의 문헌 중에서, 사도 바울로의 이름으로 소개된 14편의 편지가 있고, 그 다음으로 '가톨릭적'이라 불려지는 7편의 서간문이 있다. 이 편지들이 '가톨릭적인 서간문'이라 불려지는 이유는 편지를 보내는 이가 어느 특정 교회를 수신자로 지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이 서간문들을 '보편 교회' 곧 '가톨릭 교회'를 그 수신자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다.

원래 편지란 어느 특정 발신자가 한 수신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글이다. 하지만 발신자와 수신자가 개인일 수도 있지만 집단일 수도 있다. 가령 교황과 추기경들이 전세계의 사제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면 집단의 경우에 해당된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신자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자주 쓰는 일은 결국 신약성서가 낳은 바 이어받아야 할 중대한 한 전통이다. 그러므로 이 편지들을 어떻게 읽을까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고, 또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로가 필립비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1, 12~26의 텍스트

를 선택하여 면밀히 분석해볼 것이다. 우리의 주의력은 복음 선포를 함에 있어서 이야기의 차이나는 행위자들의 분절에 집중될 것이다. 바울로의 경우는 “사느냐 혹은 죽느냐”라는 한 쌍의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될 것이고, 결론 부분에 와서 제안된 독서의 차이는 효과들을 하나로 묶어볼 것이다.

I. 텍스트: 필립비인들에게 보낸 편지 1, 12~26

12형제 여러분, 내게 닥친 사건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이바지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13이와 같이 내 사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온 부대와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졌으며 14형제들의 대부분은 내가 간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15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선포합니다. 16이들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옹호해야 할 몸인 줄 알고 있습니다. 17그러나 저들은 경쟁심으로 곧 술책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저들은 내 사수들에 즈음하여 한 가지 고난(혹은 한 박해)을 거두어주게 할 수 있다는 상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18그러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기가 핑계이건 참되건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전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며, 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고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19그 까닭은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결국 나에게 구원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나의 기대와 희망은 내가 조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렇듯이 지금도 온 세상에서 찬양받는 것입니다. 21사실 나에게서는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22그러나 육신을 지닌 대로 계속 사는 것이 내게 열매를 맺는 사업이라면 어느 것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23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니, 사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24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육신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25이런 확신이 있기에 내가 살아남아서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위해 계속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게 될 줄 압니다. 26내가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나로 인한 여러분의 자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넘칠 것입니다.

II. 서간문들의 특성

한 편지 서간문은 복음적 설화와는 아주 차이가 난다. 복음의 설화는 이야기를 하고, 행위자들을 무대 위에 등장시키며, 이들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고, 연대순적인 질서에 따라 사건들을 서술하며, 또한 이렇게 하여 복음의 설화가 일종의 표상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현실의 세계를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간문 곧 편지는 설화 장르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우선적으로 기술문(記述文)을 통해 배치되고 또 그 특수한 수신자들에게 편지의 서명자에 의해 송달되는 한 담론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바울로와 디모테오가, 필립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씁니다……”(1, 1).

흔히 편지의 저자는 그 무엇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거나 혹은 아주 적게 이야기한다. 저자는 다양한 형식의 표현들로 자신의 서신 왕래자들과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말을 건넨다: 편지의 필자는 그 수신자들에게 복음의 믿음을 상기시키고, 이들에게 구약성서의 한 구절을 해석해주며, 이들이 선행(善行)에 열중하도록 훈계하고, 이들의 빛나간 행동들을 질책하며, 이들 앞에서 자신의 청원 기도들과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문들을 발언하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자신의 고유한 상황을 제시하며 또한 자신이 쓰고 있는 공동체들의 삶을 해석한다.

그런데 복음서들은 불확정된 한 독자를 위해서 편성된 이야기들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바로 이런 점에서, 이미 가히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반면에 사도들의 편지들은 우선적으로 특수한 서신 왕래자들의 한 그룹에게 지정되어 있고, 또한 이 서신 왕래자들은 서

간문의 첫머리에서부터 그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텍스트가 전개되는 도중에 이들은 직접적으로 독려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바울로의 편지들을 읽고 있는 현대의 독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도 있다: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부쳐지지 아니한 남의 편지를 함부로 버릇 없이 개봉할 권리가 과연 있을까? 혹은 아주 오래 전에 이미 사라진 삶의 조건들을 자신이 함께 더 이상 나누고 있지 않는 특정 인간 그룹들에게 지정된 진술들, 추천들과 훈계들에서 아직도 무슨 유익함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적 공동체는 우선적으로 바울로의 편지들을 봉독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 서간문들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다음으로 잠재적인 모든 독자들의 손에 이 편지들이 전수되었다는 점은 이미 편지들이 편집된 텍스트이자 모든 사람들의 공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편지의 형식을 취한 우리의 이 기술문들이 아직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 위치한 수신자들에게 지정되어 말이 전해어진 서간문적 말씀의 특성은, 그 가독성을 제거하기는 고사하고, 아직도 한 호소의 생생한 힘을 간직한다. 모든 독자는 편지라는 작품이 편집된 시공이 더 이상 아닌 다른 한 세상과 다른 한 시간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그 호소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독서의 어떤 원칙들의 기초 위에서, 전해어진 이 말씀이 아직 오늘날에도 수용되고, 분석되며 또 해석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필립 1, 12~26의 텍스트에 대한 이 분석의 연습이 응답하도록 시도할 것이다. 물론 이 연습은 신약성서의 한 서간문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론적인 절차를 예로써 보여줄 것이다.

2. 텍스트의 상황

분석을 위해 우리가 골라잡은 텍스트는 서간문의 서두가 아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앞서 오는 컨텍스트 안에 우리의 텍스트를 복원시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제1장에 속해 있는 우리의 문단에는 아주 적은 분량의 텍스트가 선행하고 있다.

— 누가 편지의 저자들인가를 밝히는 한 인사말(1, 1~2)이 존재한다. 필자들은 두 명이다: 바울로와 디모테오(이 같은 사실은 예외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다음의 구절에서도 다시 만나게 된다: 1고린1, 1; 2고린1, 1; 골로1, 1; 1데살1, 1; 2데살 1, 1……). 마찬가지로 수신자들이 명시되어 있다: “필립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 감독들과 봉사자들.” 이 인사말은 하나의 축원으로 마무리된다.

— 그 다음에 잇달아 바울로가 그 동기에 관해 발언을 하는 하나의 감사 기도(1, 3~8)가 존재한다: “첫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이바지한 여러분의 동참을 두고 나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끝으로 이 편지의 저자는 필립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의 기도문(1, 9~11)을 양식화한다: “이제 내가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람이 더욱더 넘쳐서……”

이 편지의 들어가는 말에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요소들에 유념해야 한다.

— 아주 독특한 발언 행위의 방식이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바울로는 자기의 서신 왕래자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데, 이는 또한 자신이 우선적으로 기도와 감사 기도를 통해 타자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서신 왕래자들에게 의미화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다. 서간문이 증언하고 있는 바 필립비인들과 함께 가지는 사도의 관계는 따라서 한 저자가 자신의 수신자들과 함께 가지는 순수하고도 단순

한 커뮤니케이션과는 아주 다른 차원 위에 바울로를 올려놓고 있다. 이 사실로 인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는 두 파트너 사이에 한 가지 메시지를 교환한다는 범상한 도식상에 자리잡고 있지 않다. 이 도식에 따르면, 한 파트너는 다른 한 파트너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건네어진 말씀의 상황은 두 극점이 아니라 세 극점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바울로, 필립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

— 저자와 편지의 수신자들을 건드리는 정보들의 한 시리즈가 있다. 필립비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상황은 바울로를 위해 끊임없는 감사 기도의 한 가지 동기가 된다. 이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따라서 빛나감이나 냉담으로 위협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믿음은 더욱더 잘 보장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복음을 견고케 하는 데 (1, 7) 필립비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사실은 이들이 바울로의 애정면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리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內臟) 안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 8).

바울로는 자신에게 고유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자신은 간척 있다고 말하지만, 이 감금(1, 7)의 조건들이나 이유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다.

3. 텍스트 자르기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텍스트의 부분은 너무 길어서 단숨에 분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텍스트에 대한 첫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부분들로 쪼개어보는 분할 작업 *découpage*은 아주 유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다음의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즉 연구해야 할 열다섯 개의 구절은 통일성이 있는 한 단위 안에 집결되

어 있다(총체성의 원칙 상기)는 말이다. 갇혀 있는 몸으로서의 자신의 독특한 상태에서 출발함으로써, 사도는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인 믿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먼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에 관해 심사 숙고하고 있다.

—1, 12~18: 사도는 어떻게 포로로 잡혀 있는 자신의 고유한 상황이 복음 선포의 새로운 조건들을 계시(啓示)하였는가를 고려하고 있다.

—1, 19~26: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반성함으로써, 바울로는 자신의 삶과 죽음, 사느냐 혹은 죽느냐에 대한 자기의 욕망에 대해 자문한다.

감금의 사건이 텍스트의 이 두 부분을 꿰뚫고 있는 연속적인 굵은 선이지만, 과연 이 두 문단의 단일성이 오로지 사건적 지칭 대상으로부터만 연유하는가를 훨씬 나중에 알아보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이 두 부분 사이에서, 19절은 전환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까닭은 [……] 이 일이 결국 나에게 구원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1, 12~18)과 다른 한편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관계에 관해 자문해보는 일(1, 19~26)은 구원의 문제를 대면하는 두 가지 필수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바울로에게는 이 문제가 절박한 사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4. 복음을 선포하다(1, 12~18)

이 일곱 구절의 전체에 걸쳐, 복음 선포의 행위를 무대 위에 등장시키는 표현들은 끈질기고도 다양하게 다시 출현하고 있다.

1, 12: “내게 닥친 사건들이 복음 전파에 이바지했다.”

1, 14: “형제들의 대부분은 더욱더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가졌다.”

1, 15: “다른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1,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옹호해야 할 몸인 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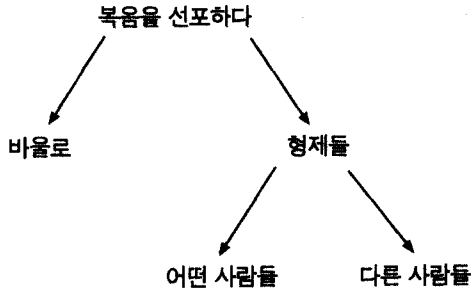
1, 17: “저들은 경쟁심으로 곧 술책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1, 18: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전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울로의 감금 사건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다. 혹은 적어도 자신의 투옥 사건은 사도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으로 복음 선포의 실행에 관해 심사 숙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 선포에 자신과 자기 주변의 믿는 이들이 각기 차이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바울로의 간힘은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선포의 진리성의 조건들을 제시(啓示)할 힘이 있는 일종의 테스트로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로는 계기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투옥 사건 이후로 복음이 한편으로는 자신을 통해, 또 “신뢰심을 가지게 된 형제들의 대부분”을 통해 선포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금”을 통해 선포되었는가를 심사 숙고하고 있다.

텍스트의 이 해독 작업에서 분석자가 추적하도록 스스로를 의무화하고 있는 몇 가지 작은 과정들을 인식하는 일은 매우 중대하다. 먼저 필요한 것은 텍스트가 유념하고 있는 중심적 실행을 찾아내는 일, 곧 텍스트의 “등장인물들 혹은 행위자들”이 집결되고 있는 행동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행위자들은 이 행동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중심이 되는 행동은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다. 그 다음으로 이 실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각기 임무에 배치된 차이나는 행위자들을 우리는 들추어냈다: 바울로(1, 12~13), 형제들의 대부분(1, 14). 텍스트는 이 형제들 가운데서 “시기와 다름”으로 복음 선포의 활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복음 선포를 하는 이들이(1, 15) 있다고 지적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의 도식으로 행위자들의 이 분배를 표상할 수 있다.



한 실행을 중심으로 한 행위자들의 조직에 대한 이 찾아내기의 단순한 훈련은 물론 충분하지가 않다. 반대로, 첫 분석 작업을 통해 유념되고 조직된 이상의 몇 가지 요소들은 상당히 확실한 의존점들이다. 이 요소들이 객관적으로 텍스트 안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의존할 수 있는 이 요소들상에서 해야 할 것으로 남아 있는 해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행의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이 구별은 이미 이러저러한 사람들에게 귀속된 제각기의 역할들을 찾아보도록 촉구한다. 그들은 각자 상호간에 서로 구별되는 까닭에, 이는 의심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있어서 각자에게 고유한 방식들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남을 지적하고 있다: 바울로는 형제들과의 동일한 조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리고 형제들의 모두는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로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복음 선포자들의 차이나는 역할들을 해석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 역할들의 다양한 폭은 십중팔구 복음 선포라는 총체적인 실행의 진리성에 대한 조건들을 개진하고 있다.

I. 바울로의 역할

바울로는 “내게 닮은 사건들”에 관해 말한다. 이 문장을 더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내 위에 떨어진 사건들”이다. 이런 상황—이 상황 안에서 바울로는 먼저 수동적이다—은 복음 전파의 발전에 이바지했다(1, 12).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복음 곧 기쁜 소식은 일종의 선포이자 전파이다. 하지만 바울로는 감금된 수인(囚人)이기 때문에 한 설교가의 방식으로 자기를 복음 선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키지 못한다. 만일 부대 안에서, 다시 말해 바울로가 갇혀 있는 로마인들의 공간 안에서 복음이 선포된다면, 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바울로의 담론들이나 설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 선포는 “사슬들,” 곧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그 유일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내 사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온 부대 안에 (……) 분명히 알려졌다”(1, 13).

따라서 바울로의 투옥 사건은 복음 선포에 족쇄를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갇힘은 반대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종의 아주 독특한 방식을 드러나게 한다: 담론을 개진하는 일이 없이도, 쇠사슬로 묶여 있는 바울로의 육체 자체가 홀로 말을 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 육체는 불의한 한 소송의 어느 희생자 주체의 정당한 재판을 위해서 거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그 자신을 계시한다. 바울로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 사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은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라고 텍스트는 말하지 않는다. 묶여 있는 사람의 이 상태 안에서, 바울로는 그리스도를 현시하고 있고 또 바로 그분 안에 그가 살고 있다는 말이지, 그분에 관해 그가 담론들을 개진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로마인 군인들의 부대 안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계시는 진술될 수 있고 또 옹호될 수 있는 한 소송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계시는, 필수불가결한 언어적 표현의 도움이 없이도, 증인으로서의 복음 전파자의 몸 안에서 또 이 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II. 형제들의 역할

한 가지 앞서 오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바울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형제들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의 두 가지 가능성이 즉시 나타난다: 이들은 필립비 사람들 혹은 불특정한 한 다른 그룹이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다. 첫 해결책은 즉각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도가 삼인칭으로 말을 하고 있는 이 형제들은 편지의 수신자들과는 단연 구별된다. 바울로는 이 수신자들에게 2인칭으로 말을 건네고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는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갖게 된 이 형제들과” 필립비 사람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도 제공하지 않는다. 형제들에 대한 분배는 오히려 부대 안에서 포로로 남아 있는 바울로와 밖에서 그러니까 그 부대 외부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역사가들은 이 형제들이 바울로가 투옥되어 있는 그 도시 안에 거주하는 믿는 이들이란 암시를 할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이 점에 관한 한 오로지 텍스트의 여건에만 집착한다면, 다음의 말만 할 수 있다. 즉 이 형제들이란, 바울로의 감금 생활이란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도에게 아주 가까운 측근들의 한 그룹, 곧 서간문의 수신자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믿는 이들의 그룹이란 말이다.

반면, 서간문은 복음 선포의 일에서 이 형제들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의 장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과연 만일 바울로가 자기 편에서 죄사술들 안에서와 이것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고 있다면, 이 형제들에 관해서라면, 이들은 구술적 언어와 담론의 도움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이 형제들은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한다”(1, 14), “이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한다”(1, 15),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한다”(1, 16),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는 전해진다”(1, 18).

복음화에 대한 이들의 과업은, 바울로의 경우에서처럼, 물리적이고도 육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과업은 이들에게

고유한 지식과 담론의 능력을 통해 인수되어야 할 한 가지 작용이다. 과연 이 작용을 위해서,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며”(pepoithotas 1, 14) 직역하면 “확신을 당해야 하며,” 다음으로 구술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lalein 1, 14). 그렇다면 이들이 지식들을 개진하기 위해서 혹은 어느 한 가지 교의(敎義)의 유익성을 가치 있다고 진술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중대하다고 보는 것은 이들의 역할이 간혀 있는 바울로의 역할과 밀접하게 분절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한 분에게는 사슬로 맨 육체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포의 담론들의 기능이 주어진 것이다. 이 한 분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는 선(線)상에 단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와는 정반대로 이제부터 복음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전파되고 있다는 이 단 한 가지의 사실로 인해 복음 전파의 일이 진일보한 것이다(1, 12). 바울로의 시련은 믿는 이들을 위해 “확신을 주는” 다음의 증명을 해주었다. 즉 복음은 비록 그 전언자가 채포되었을 때라도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족쇄들은 증언의 힘을 막으려는 장벽을 세우지 못한다. 그리고 형제들의 담론들은, 본질적으로 구술적 본질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바울로의 체험 안에서 더욱더 용기를 배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울로의 체험은 다음의 사실을 증언한다. 즉 복음은 아직도 또 더 기본적으로 단어들의 부재 그리고 단어들의 저 아래에서, 말쑥을 하는 육체, 담론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가 결핍되어 있는 그 육체의 강력한 현존을 통해 자유롭게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말해지고 전파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전파된 복음의 진리는 우선적으로 그 진리를 내포할 수도 있는 단어들 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의 몸에 들이닥친 사건을 통해 선포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바로 복음의 총체적이고도 기초적인 주체의 모습이 그 베일을 벗고 드러난 것이다. 이 주체 안에서 한편으로는 육체가 다른 한편으로는 담론이 총체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그런 주체의 모습 말

이다. 이는 마치 복음의 새로운 선포가 부대 안에서 사술에 묶인 사람과 도시 안에 산재해 있는 설교자들 사이를 밀접하게 일치시키고 있는 것과도 비슷하다.

III. 형제들의 분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상황—이 상황에서 두려움은 추방되었다—은 형제들 사이에서 일종의 분열을 초래한다: 형제들 중의 모두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분열은 기쁜 소식의 내용을 위협으로 몰아붙이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한편으로 유일하고도 참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과 다른 한편으로 복음 내용의 거짓을 설교하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연 바울로는 이 문단을 다음과 같이 단언함으로써 결론짓는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전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형제들간의 분열의 내기는 다른 종류의 차원에 속한다. 이는 마치 모든 두려움의 추방이 어떤 사람들의 머리를 들게 한 것과도 비슷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이들의 메시지의 진리가 손상되고 썩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식별의 기준들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기준들에 따라 이 두 그룹간의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형제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그들의 실존 상태인 것이지 그들이 말하는 것의 내용이 결코 아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들의 케리그마적인 열정 안에서 “시기와 경쟁심”(1, 15)과 “술책의 정신”(1, 16)에 의한 충동을 받고 있다. 그들 중 다른 이들은 “좋은 뜻을 품고”(1, 15) “사랑으로”(1, 16)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두 그룹을 분별하는 이 몇 가지 특성들을 들추어내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 특성들을 찾아내는 일은 텍스트의 조직을 묘사하는 일의 시작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 특성들을 들추어내는 일로 만족하는 것은 이것들에 대한 설명적인 환언의 차원에 머물 모험을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분석이 인정한 이 분류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바울로가 질투와 경쟁심으로 활동하는 자들의 처신에 대한 고발을 더 길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은 이들의 행보를 해독해 보려는 일로 시작할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성서적 텍스트들에 대한 분석이 노상 겪고 있는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이 문제란 다른 아닌 바로 번역의 문제이다. 그리스 말 혹은 히브리 말로 된 텍스트는 언제나 그 번역이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텍스트적 단어들에 대한 우리말로 의 직역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번역하는 이는 단어들의 한 가지 의미 작용만을 선택해야 하고, 또한 우리말 성서 역본들 중에서 어떤 역본의 텍스트는 의미의 오역을 초래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 이유로 성서를 심각하게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성서 원전의 텍스트를 읽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성서 역본들을 비교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은 유일한 한 역본에 의존하는 잘못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자란 배반자다 *Traduttore, traditore*”라는 말이 있듯이, 번역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 역본 텍스트는 언제나 불안정한 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주석가들은 이 형제들의 질투심에 유념함으로써 이들을 바울로의 경쟁자들로 둔갑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가설을 17절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절은 해석상의 어려움들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저들은 내 사슬들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려는 상상을 하고 있다”(예루살렘 성서) 혹은 “나의 감옥 생활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불어 공동 번역) 혹은 “저들은 내가 갇힌 데다 고통을 더하려고”(200주년 성서) 혹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공동 번역) 혹은 “not sincerely but thinking to afflict me in my imprisonment”(RSV). 술책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형제들의 의도들은 바울로가 이미 겪고 있는 감금 생활의 육체적인 고통들에 “윤리적인 한 고통”을 더하려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

다는 식으로 이 주석가들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해석상의 이 일반적인 틀을 출발점으로 삼고서, 주석가들은 이 형제들이 바울로에게 고통을 더하려는 생각의 이유들을 상상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 혹은 이 사람들은, 바울로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의 의미에 이론(異論)을 제기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거절하고 그리고 비겁하게도 위험을 무릅쓴 바울로를 비난한다라는 가설을 내세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형제들의 용기 부족이 그 정도라면, 어떻게 이들이 말썽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기 위해서(1, 14) 더욱더 자기네의 용기를 배가할 수 있었는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가설은 텍스트의 여전과는 전적으로 모순적이다.

* 혹은 이 그룹의 사람들은 비겁하다고 판단된 모종의 교섭들을 바울로에게 질책하고 있다는 가설을 내세운다. 비겁한 교섭들이란 바울로가 자신의 우발적인 석방을 목적으로 한 행동들을 지적한다는 말이다. 만일 바울로가 가능성이 있는 자신의 석방에 관해 말을 한다면(1, 25), 그는 이 목적을 위해 텍스트의 어느 곳에서도 자신에 의해 취해진 교섭들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 같은 가설은 전적으로 황당하고 또 전혀 관심 밖의 일이다. 그 까닭은 텍스트를 통해 확인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아 있는 일은 기술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요소들만을 가지고 이 기술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더욱이 아주 단순한 이 원칙이 모든 좋은 분석의 기초이다.

확실한 것은 이 형제들이 시기·경쟁심 그리고 술책의 정신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의식적 충동 *pulsion*에서 연유하는 이런 감정들은 언제나 한 객체를 겨냥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 무엇을 시기하는 것은 자기들은 그 무엇을 소유하지 못하는 반면에, 그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한다. 이런 의미로 그 다른 사람은 한 경쟁자이다. 그런데 좋은 혹은 나쁜 의도들로 무장이

된 이들 모두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용기를 배가하고는 있지만 결국 바울로의 투옥을 통해 이런 감정 곧 질투심의 충동을 받고 있다. 이런 대담성은 바울로의 운명에 던지는 시기심의 시각에서 연유하는 그때부터 시의에 적절하지도 않고 정도를 벗어난 타락한 대담성이다. 17절을 그리스 텍스트에서 정확히 번역하면 이 형제들을 통해 무턱대고 탐내어진 객체가 분명히 드러난다: “저들은 내 사슬들에 즈음하여 한 가지 고난(혹은 한 박해)을 거두어주게 할 수 있다는 상상을 스스로 하고 있다.” 사도의 운명을 부러워하는 이 형제들은, 바울로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박해를, 그네들 자신도, 알고 싶어하는 바, 과도하고도, 병적이며 불건전한 한 욕망에 의해 충동을 받고 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들의 열정은 혼란스러운 이 감정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고 있다: 이 감정은 다름아닌 바로 순교자가 되고 싶어하는 탐욕 *la convoitise du martyre*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그리스도의 선포를 한 상상적인 죽음 위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죽음은 적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죽음으로 수식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선동적인 질투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상상적인 죽음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탐욕스러운 약탈의 대상이란 사실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이런 죽음은 그야말로 복음의 생명의 말씀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이리하여 기쁜 소식을 그 상반성으로 환언시키는 일은, 비록 그 내용을 변질시키는 일은 없을지라도, 복음을 “하나의 핑계”(prophasis 1, 18), 생명을 위한 진리의 호소가 아니라 “죽음을 위한 핑계”로 만드는 것이다: “핑계이건 참되건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전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다”(1, 18). (이제 성서 연구자가 성서를 주의 깊게 읽기 위해서 왜 그리스 말이나 히브리 말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았으리라. 하지만 문헌학적이고도 역사적인 연구는 텍스트 해석의 마지막 열쇠 *ultima ratio*가 아니란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로의 감금 생활은 복음 전파자들의 순수한 혹은 타락한, 그들의 비밀스러운 감정들을 제시했다. 따라서 기쁜 소식의 내

용의 온전성은 그 설교자에게 자기 행위의 진리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그 반면에, 그리스도께 대한 선포는 그 대변인들의 올바른 의도들이나 타락한 핑계들로부터 그 능력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선포의 힘은 복음 선포의 봉사자들의 좋은 혹은 나쁜 마음가짐들을 훨씬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바울로의 케이스: 살다 혹은 죽다

바울로는 자신의 운명을 시기하는 이 형제들의 태도를 다룬 후에, 자신에게 고유한 케이스의 운명에 관해 말을 한다. 텍스트의 한 분석 작업에서, 분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구별한 뒤에, 이 부분들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에 관해 질문을 해보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다. 비록 텍스트의 두 부분이 분명한 연결성이 없이 잇달아 올 때라도, 이 두 부분의 병렬과 계기성은 이것들을 서로 이어주는 바 숨어 있는 관련성을 찾으려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연관성은 흔히 주제적인 질서에 속한다. 바로 이런 탐구가 해석의 작업이다.

선행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형제들의 시기가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하지만 복음에서 내용의 한 단어도 변질시키는 일이 없이 오히려 고난과 상상된 이득의 회망을 위해 복음을 한 가지 핑계로 삼았다는 사실도 알아보았다. 이 불전전한 경쟁심 뒤에 우리가 상기했던 삶과 죽음의 혼합된 놀이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8절은 이 두 가지 실재에 관해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오직 이 둘째 부분에 와서, 바울로는 자기 자신에 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면하면서 자신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자기에게 고유한 이 경우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또한 밀그림의 한 가지 소급 효력을 통해 복음 전파에 관한 선행하는 모든 토론에 봉사하고 있다. 바울로는 이 점에 관해 참다운 내기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기쁜 소식은 삶과 죽음이 그토록 서

로 밀접하게 뒤얽힌 모든 인간적 실존 안에서 어떤 호소를 메아리치게 하는가? 그의 예외적인 상태와 포로라는 위태로운 신상은 바울로로 하여금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을 하도록 해주고 있지만, 단숨에 그는 어떤 형제들이 망각한 것으로 보이는 일차적이고도 기본적인 대답을 제공한다: 복음은 각자에 의해 '구원으로서의 호소'로 경청되어야 한다. "이 일이 결국 나에게 구원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1, 19).

먼저 중대한 것은 19~26에 이르는 선상에서 일반적인 움직임을 잘 찾아내는 일이다.

—바울로는 자기 자신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는 한 양자택일의 틀 안에서 자신과 함께 토론을 벌인다: 혹은 살 것인가 혹은 죽을 것인가?

—그는 자신이 선호하는 편을 제시한다: "죽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다"(1, 22; 1, 23b에는 다르게 양식화되어 있다).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자신은 모른다고 단언한다(1, 22).

—그는 자기의 현재적 경우 안에서 이 양자택일은 '허구적'이란 사실을 알아듣도록 함으로써 말을 마무리짓는다: 그는 자신이 살아 남으리라는 것과 필립비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1, 25~26). 결국 바울로가 알려주고 있는 '허구적인' 양자택일은 다음과 같이 알아들어야 한다. 오늘 당장에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지 않음으로 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임박한 단죄나 혹은 가장 빠르게 죽기 위해서 자신을 단죄받도록 내버려두는 경우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선택' 앞에서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는 드라마적인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사랑하는 필립비 사람들에게 귀환하리라 확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비 사람들 앞에서 바울로가 자기 자신과

함께 벌이고 있는 이 ‘허구적’인 토론은 적지 않게 ‘현실적’이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본질적인 것의 핵심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이다: 핵심이란 믿는 이가 삶과 죽음과 맺는 관계이다. 우리는 그 하나와 다른 하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해야만 하는가? 그 중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더 욕망해야 하는가?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바울로는 첫번째의 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해답은 삶과 죽음을 상반된 가치들로 만들고 있고, 후자의 경우가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라고 말한다. 그것은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바울로는 반대되는 논거를 내세운다: 삶에 아직도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자신은 필립비 사람들의 공동체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제 상반되는 두 가지 욕망(1, 22) 사이에서 분열되어 갈라진 사람이 된다. 결국 필립비 사람들의 이득이 육체 안에 남아 있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득 때문이라는 이런 논거는 그리스도를 향한 결정적인 한 떠남을 원하는 바울로의 선호(選好)를 다시 문제로 삼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바울로가 여기서 전개시키고 있는 추리를 이렇게 요약하는 것은 이런 전개 안에 바울로가 끼여들게 하는 모든 미묘한 점들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바울로가 그리스도 곁에 가고 싶다는 자기의 욕망을 말할 때, 그는 애매모호한 한 용어(epithumia 1, 23)를 사용하는데, 사람들은 이 단어를 ‘욕망’으로 보통 번역하고 있지만 이 용어를 마찬가지로 ‘탐욕 *convoitise*’ (예를 들어 로마 1, 24; 6, 12; 갈라 5, 16, 24)으로도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그가 이 욕망을 한 문장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이 문장에서 비교사(比較辭)들을 너무 많이 사용한 나머지 문법상의 오류를 범할 정도다: “그리스도 곁에 가는 것이 많이 더 좋고 가장 좋다”(1, 23). 과도함의 한 형식이 이 욕망과 그의 표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이런 과도함은 바울로 자신이 어떤 형제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수식했던 시기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에게서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질투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울로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한다. 바울로는 여기서 이 열정의 모든 애매모호성의 상태를 점점하고 있는데, 이 열정은 믿는 이로 하여금 자신에게 죽음을 소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재결합하고 싶은 충동을 한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참된 욕망 혹은 하나의 탐욕인가? 복음은 믿는 이로 하여금 죽음을 갈망하게 하도록 인도하는가?

사건들의 실재성(바울로는 필립비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은 이 토론의 환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한다. 하지만 제기된 문제는 과연 실재적인 사실로 남아 있다. 그리고 바울로는 이 질문에 해답의 요소들을 제공한다. 그는 아주 단순하게 복음은 믿는 이를 살도록 하는 것이지 결코 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 “사실 나에게 는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다”(1, 21a).

그렇다고 해서 이 선언으로 인해 죽음의 엄연한 현실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은 오로지 제자리에 복귀되었을 뿐이다: 죽음은 삶의 대립 요소가 아니라, 삶의 한 가지 구성 요소이다. 바울로가 바로 선행하는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렇듯이 지금도 온 세상에서 찬양받는 것입니다.”(1, 20). 포로라는 그의 상황은 다음의 사실을 제시했다. 즉 복음 선포, 곧 믿는 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현양은 선포의 담론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또 우선적으로 증인의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자기 몸을 통해 증언하는 것이 바울로의 놀라운 믿음이다. 따라서 믿는 이에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참다운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위격과 자기의 전존재를 일치시키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이룩하신 것처럼, 이 증언도 죽음의 통과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현양하는 일은 바로 그 몸 안에서 살고 또한 그 몸 안에서 죽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먼 곳에 붙잡아두는 한 삶과 또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한 죽음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욕망의 대상인 이 죽음이 그리스도께로 접근하도록 해준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욕망을 바로 이 생명의 용솟음을 향해 방향을 잡게 하고 있고, 이 생명의 분출 안에서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다. 바로 이런 삶은 육(肉) 안에 남아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한 죽음도 내포하고 있다. 그 까닭은 죽음이 삶에 대한 완성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삶이 거짓스럽게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가 바로 삶이다라는 이 삶은 죽음을 '탐욕'의 한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해서 믿는 이가 죽음을 스스로에게 재촉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죽음은 제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리고 바울로는 자신의 결정적인 세상 하직이 아직은 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삶——육 안에서 의 삶과 죽음을 통한 삶——은 자기 차례가 오면 생명을 내놓게 하고 한 열매, “열매를 맺는 한 가지 사업”(1, 22)을 생산하는 것으로부터 그 가장 참되고 올바른 진리성을 부여받는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신앙이 생겨나게 하고 또 자라게 하여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보다 더한 필요로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기에 내가 살아남아서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위해 계속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게 될 줄 압니다”(1, 25).

바울로는 여기서 자신에게 고유한 이득보다는 공동체적 이익을 앞세워가며 추론하고 있지 않다. 그는 오히려 사람들이 선망하고 있는 것이 한 진술한 욕망 혹은 탐욕의 한 대상인가를 식별하도록 해주는 기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욕망이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만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도 필요한 것은 매력이 그토록 강한 이 삶은

이 삶 뒤에 복음의 신앙으로부터 받은 동일한 삶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삶, 이 삶이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기에 제아무리 욕망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삶이 타인에게 삶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런 삶은 속임수요 죽음을 갈망하는 하나의 탐욕(프로이트가 말하는 죽음의 충동 *Todestriebe, Pulsions de mort*이다)에 불과할 것이다. 필립비 사람들에게로의 바울로의 귀환은 이렇게 하여 이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또 이들의 믿음을 꽃피울 것이며, 사도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진실성을 보장한다. 이 욕망이란 바로 생명을 이웃들에게 전수하게 하는 바, 생명을 위한 욕망이다.

6. 나오면서

결론 부분에 와서, 우리는 이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분석 과정을 안내한 방법론의 몇 가지 요소들을 상기할 것이다.

텍스트를 처음 읽고 난 뒤에, 독자는 보통으로 이 첫 독서로부터 총괄적인 한 이해를 얻게 되는데, 흔히 이런 이해는 단순하고도 또 상대적으로 아주 분명한 주도적인 한 아이디어의 형식화에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텍스트가 무엇에 관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린다. 사람들은 안다…… 혹은 적어도 알아차리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독서는 속독(速讀)의 경우이다. 속독에 잇달아 오는 힘든 분석의 작업은 명료성의 이 첫인상을 지워버리고, 우선 그토록 자명한 것으로 나타난 것 앞에서 놀라움을 만나게 하고, 의미가 그토록 투명한 것으로 보였던 자리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사실 잘된 분석은 텍스트의 말을 몇 가지 일반적인 아이디어로 요약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는다. 너무 성급하게 언표된 이런 아이디어들은 주의 깊고도 치밀한 독서가에게는 장애물이며, 텍스트적 씨실

을 교차시키고 색깔을 주려고 오는 다수의 실들을 전혀 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바로 거기에는 거의 일종의 법칙이 존재한다: 텍스트의 형식이 설화의 형식에서 멀어지고 또, 바울로의 편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개념적인 담론으로 그 방향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욱더 독자는 추상적인 요약들로 화급히 도움을 청하는 유혹을 더 강하게 받는다. 그런데 잘 조율된 한 분석은 첫 독서가 인지하지도 유념하지도 않았던 다양한 모든 세부 사항들을 발고랑에서 이삭을 줍듯이 수집한다. 텍스트에는 그 무엇도 배제되어야 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의미를 생산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흔히 가장 작은 요소,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었고 혹은 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가장 하찮은 요소가 분석의 행보 끝에 와서 큰 아이디어들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이 큰 아이디어들을 통해 텍스트를 요약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심지어 하찮은 그 요소가 흔히 이런 아이디어들을 근본적으로 문제시하기도 한다.

연구해야 할 텍스트를 여러 단위로 분할한 뒤에 — 하지만 이 분할된 단위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곤란하다. 이 분할 작업이 분석의 과정을 산만하게 흩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 분석가는 “세부 사항들 *détails*”을 들추어내야 하고 또 이들을 조직해야 한다: 사용된 이미지들을 탐구하고, 어떻게 어떤 이미지들은 다른 이미지들을 부르고 있으며(연상 작용), 대립 요소들과 차이성들을 들추어내고, 어떻게 이 대립성과 차이성의 요소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며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요소들을 분류하도록 해주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바울로의 편지 안에서 특히 어떻게 텍스트가 말을 건네오고 있는 등장인물들(2인칭)과, 사람들이 3인칭으로 말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제각기의 역할을 맡고서 무대 위에 등장하고 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 중대하다. 이 등장인물들은 그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능들 혹은 재체들을 그 대상으로 지칭하고 있다.

끝으로, 분석가가 언제나 유념해야 할 것은 찾아내기(의미라는 보물 찾기의 놀이), 분류 작업 그리고 요소들의 조직화의 이 모든 작업으로

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물론 한 독서의 작업은 무릇 텍스트에 대한 가능한 한 객관적인 묘사 작업으로 그 일을 시작한다. 하지만 독서의 작업은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독서는 물론 이러한 묘사 작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런 독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해석 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는 마치 음악가 혹은 가수가 악보를 해독한 뒤에 이 악보를 연주하기 위해 먼저 해석해야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이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다음의 사실이다. 아주 깊은 심층의 수준에서, 분석을 통해 들추어낸 모든 요소들을 재정돈하고, 이것들을 사슬로 매어주며 그리고 이것들로 하여금 의미 작용의 한 제안을 울려 퍼지게 하고 메아리치게 하기 위해서 이 요소들을 재장악하는 한 가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런 가설의 제안은 언제나 모험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런 제안은 분석가-해석가로 하여금 결정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석가-해석가가 만일 이런 모험을 감행하지 않으면, 그의 독서 행위는 더 심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된다: 겨누 과녁을 맞히지 못한 활쏘기, 이런 분석은 실패작이란 말이다.